

저소득 독거노인의 의식확장으로서의 건강연구*

심 문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발달주기에서 보면 노년기도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고 변화하면서 고유한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는 시기로서 자신이 처한 환경내에서 나름대로 건강행위를 수행하며, 충분하게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스트레스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은 의식적인 과정을 통하여 과거 사건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느껴오던 갈등을 해결한다(Jonas, 1992). Pender(1990)는 전 생애에 걸친 주관적, 객관적인 경험으로 건강을 언급하면서,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환경 상호작용 양상과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간호실무의 시급한 과제라고 하였다. 개인이 경험한 세계를 이해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한 접근이 효과적이다. 특히 Newman(1986, 1994)의 의식확장으로서의 건강 이론은 간호실무에 근거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Newman에 의하면 “건강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의식이 확장되어 가는 경험”을 말한다. Newman(1994)은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중에서 참여자-간호사 사이의 상호관계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간호실무는 참여자-간호사 관계의 맥락에서 참여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양상

을 인식하도록 돋는 것이며, 간호학의 실무초점이 인간의 건강경험을 들보는 것(caring in human health experience)이므로 간호실무 과정이 간호연구의 내용이라 하였다.

Newman의 건강이론에 근거한 실무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는 다양한 집단에 대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 연구들은 Newman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 집단에 따라 구분해 보면, 환자를 대상으로 양상을 확인한 연구(Endo, 1998; Jonsdottir, 1998; Kang, 2000; Newman & Moch, 1991), 가족의 건강양상을 확인한 연구(Endo et al., 2000; Yamashita, 1998, 1999),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식 확장의 양상을 확인한 연구(Gong, 2003; Kang, 1994, 2000; Pharris, 2002; Picard, 2000)와 간호 교육에 적용했던 연구(Picard & Mariolis, 2002)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을 통해 Newman의 의식확장으로서의 건강이론이 간호의 지식체 개발에 유용한 연구방법임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Newman의 실무연구방법론은 일상생활속에서 참여적 접근방법으로 저소득 독거노인과 동반자적 관계에서 간호실천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용한 연구가 간호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간호실무가 곧 연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간호사는 Newman의 실무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사회 실무현장에 적합한 간호이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 본 연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2004)의 일부임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교신저자 E-mail: msshim@konyang.ac.kr)

생각된다. 그런데 지역사회 거주 독거노인들은 사회구조적 맥락과 관련된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다 전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Chen & Wilkins, 1998) 독거노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 인간경험에 대한 돌봄이라는 간호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독거노인에 대한 연구들(Kim, 1999; Lee, 2002; Yang, 2002; Worobey & Angel, 1990)은 연구자의 초점에서 접근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독거노인들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탐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이들을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건강경험을 Newman(1986, 1994)의 이론틀 내에서 접근하면 참여자들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그들의 경험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Newman(1986, 1994)의 건강이론에 부합되는 실무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자-연구자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건강경험의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연구자가 가진 연구 질문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건강경험은 무엇인가?'이며, 이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저소득 독거노인의 건강경험 양상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일개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보건소 가정간호계의 방문간호를 받고 있는 노인 가운데 연구 참여를 수락한 7명이었다. 연령은 79세에서 86세이며 자녀가 있으나 현재 연락이 없는 상태이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거의 만남이 없이 20년 이상 혼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당뇨, 고혈압 혹은 관절염과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고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이 살아가고 있다.

보건소의 방문간호외에도 노인복지관과 구청의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 탐색과정

본 연구 참여자의 건강양상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관찰과 대화를 통하여 탐색되었다. 연구 참여자와의 첫 만남에서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느때든지 연구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또한 자료를 익명으로 사용하며 면담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이야기를 녹음하고 대화일지를 기록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했다. 면담장소는 참여자의 집이어서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충분한 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연구 탐색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이루어졌다. 1회면담시 대화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였으며 대체로 10회 이상에 걸쳐 만남이 이루어졌다. 자연스러운 대화의 종료를 위해서 대화 시간은 미리 정하지 않았으며 참여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을 조절 하였다. 참여자들이 필요할 때는 연구자와의 접촉이 언제나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핸드폰 번호와 연구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연구자도 참여자들과 신뢰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 전화방문을 주 1-2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였다. 상호관계의 종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기간은 10회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2개월에 끝나기도 하고 7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했다.

Newman(1994)은 실무연구방법론에 따라 여섯단계로 프로토콜을 제시했는데 이 연구단계는 면담-옮겨쓰기-이야기의 전개-그림그리기-후속면담-이론의 적용이다. Newman의 건강이론 연구는 어떤 내용이나 유형의 질문인가 보다는 간호사가 참여자와 어떻게 건강 양상화를 이루어 가면서 변화해 가는지에 초점을 둔다. Newman이론을 적용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보면 연구자의 배경과 연구 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 방법이 차이가 나타난다. Newman도 건강이론은 적용 상황이나 방법에 따라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Newman 이 제시한 양상탐색 질문은 '당신의 삶에서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인데, 참여자들은 독거노인들 이었기에 자신의 삶을 긍정적 경험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양상화 인지를 위해서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

어 양상탐색을 위한 대화는 “살아오신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로 시작하였다. 참여자와의 상호작용 내내 건강경험의 변환과정의 특성인 타협, 호혜성, 힘북돋우기를 탐색과정에서 적용하였다.

3. 탐색 결과 분석

Newman(1994)의 실무연구방법을 적용한 양상 분석에서는 연구의 초점을 의미와 해석, 이해에 두며, 참여자와 연구자와의 관계, 참여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특성이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변증법적 과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양상 분석 전에 연구자가 자료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참여자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읽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성찰하였다. 양상 분석은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이 끝날 때마다 이루어졌다. 녹음된 대화 자료의 필사본을 토대로 연구자가 요약본을 만들어 다음 번 만났을 때 대화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참여자와의 전화를 통한 대화 자료도 분석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참여자와의 대화는 연구자가 추출한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에게 그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도 가졌다.

본 연구에 제시된 양상의 인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의 3단계로 분석되었다. 연구 목적인 ‘저소득 독거노인의 건강경험 양상을 확인’ 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삶의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초기 건강경험으로 정의하였다. 2단계는 참여자들이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건강 양상을 인식함에 따라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던 전환점을 확인하였다. 3단계는 참여자들의 전환점을 기점으로 하여 변환된 행동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일어난 연구자의 변환 경험을 분석하였다.

4. 연구자 준비

연구자는 임상실무에 있으면서 의료봉사 동아리에서 주말마다 실시하는 저소득층 영세민 의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독거노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고, 지역사회간호학 실습을 통해서는 가정간호사와 함께, 실습후 추후 방문을 통해 평소 독거노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에 간호학과 1학년에서 4학년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가정간호 연구 활동을 하는 나눔이라는 학과 연구동아리의 지

도교수로서 독거노인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 질적 연구자로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하였고, 질적 연구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간호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 경험을 하였다. 무엇보다 현재 실무에 있는 보건소 가정간호사와 만남을 지속해 오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민감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Newman의 건강이론과 실무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을 가능한 한 모두 탐색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한 선형 연구자와의 만남을 유지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많은 정보와 통찰력을 얻었다.

5. 연구방법의 엄격성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의미와 문맥의 정교함, 융통성, 민감성을 추구한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의 엄격성은 실제로 겪은 인간경험을 밝혀 의미있게 기술하는 것으로 정해진 규칙이나 절차 등에 집착하지 않는다 (Sandelowski, 199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와 양상분석 및 결과분석을 평가하기 위하여 Sandelowski (1993)의 4가지 기준 1) 신빙성(credibility) 2) 적합성(fittingness) 3) 감사가능성(auditability) 4) 일치성(confirmability)을 적용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자 했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관찰과 대화, 전화를 통해 관계의 지속성을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현장노트를 하여 상호작용 관계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참여자에게 확인, 수정 보완하였고 전반적 표현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동료의 확인과정, 국어학자의 자문을 받았다. 적합성을 위해서는 심층면담을 하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감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신뢰관계 형성과 면담절차를 자세히 제시하고 양상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자료분석 절차에 있어서도 뉴만의 실무연구방법론의 절차를 따랐다. 일치성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심층적 대화와 전화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탐색하였고 현장기록에 상세히 기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III. 탐색 결과

독거노인의 건강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Newman의 실무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의식 확장으로서의 건강이론에 따른 참여자들의 건강경험은 다음의 세 차원으로 나타났

다. 첫째, 참여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의식확장의 구속단계에서 경험했던 초기 건강경험의 양상이었다. 둘째, 참여자들이 초기 건강경험 양상에 대한 인식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행동의 가능성을 얻게 된 전환점 경험 양상이었다. 셋째, 참여자가 전환점을 계기로 얻은 세가지의 변환 경험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참여자와 연구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한 연구자의 건강경험은 네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전환점 경험과 변환 경험 및 연구자의 건강경험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1. 참여자의 전환점 경험

참여자-연구자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자가 관찰하고 참여자의 기술에서 확인한 전환점 경험 양상은 주변의 관심, 지속적인 만남, 많은 시간 함께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충분히 노출하도록 하는 것이 비로소 현재를 수용하고 미래에 대한 관점을 달라지게 하여 그 결과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전환점 경험이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오랜 시간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자는 참여자가 양상 인식을 촉진할수 있도록 잘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다.

● 자신의 삶을 노출하면서 이야기가 통함을 느낌

참여자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자신들의 지난 삶을 현재로 이어가는 자신의 처지와 연결지어 부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어디에 내 놓고 얘기할 수도 없었던 삶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씻어내어 정서적으로 환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아들, 떨한태도 못하는 얘기 이렇게 선생님이 들어주고 하니 다 얘기하고... 선생님은 내 얘기 다 들어주고... 첫째 말이 통해. 통한다고...”

“요즘 사념들 날 얘기 안 들어줘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온 얘기해서 뭐해. 우리네 처지를 누가 알기나 한다고.. 다 소용없지.. 근디 젊은 선생님이 찾고 우리네 신경을 잘 아는구만 그려. 젊은 사념이 어쩌면 이렇게 노인네하고 얘기를 잘해. 다들 노인네 냄새난다고 옆에 오지도 않는데....”

“남들한테 한마디도 안하고 살았어. 좋을 것 하나도 없이 지지리 궁상으로 살아온 얘기를 해봤자 누가 해경

해 줄 것도 아니고 뭐 나한 힘들지..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했는디 나도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사념이 있대 것 아녀. 내 얘기 잘 들어주고 말이 통한께 좋아. 아주 속이 시원하당께.”

참여자들은 지나온 삶을 현재 자신의 처지와 연결지어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는데 터 놓고 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을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 타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낌

참여자들은 지나온 삶에 대해 자책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처지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집만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는데 참여자-연구자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 지난 삶을 다시 조명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지 못했던 삶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는 자신의 삶이 그다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수용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주변의 관심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삶의 의지를 갖게 되고 자존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도 나 같은 노인네는 이렇게 냠냠 찾아와서 들어다 보고 얘기 다 들어주고 같이 있어 주니까 좋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써 주시니 선생님 말대로 건강해야 되겠어요.”

“그저 이 늙은이 먹으나고 복지관 총각이 전신 도시락도 갖다 주고 보건소 선생님도 들려주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몽나. 목사님도 아들처럼 대해 주시니까 고마운 분이지. 항상 신경써 주신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참여자들에게는 관심과 위로가 느껴질 때의 대화가 자신들이 새로운 행동의지를 가지게 된 전환점이 되는데 mirroring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 질병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

참여자들은 노년기에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만성 건강 문제로 매일매일 아픈 몸을 끌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자신들은 아픈것만 빼고는 살만하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건강문제를 제외한 자신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가끔 숨차서 그렇지 나는 숨찬 것만 없으면 살만하. 그래도 나는 저 뒤 뇌씨 할머니처럼 풍싸지 않고.. 사니까..” “내가 무릎 아픈거 빼고는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나는 이렇게 어깨가 지쳤이여. 비오면 더한답게. 어깨는 유품이 그렇고 무릎은 유품이 그려야. 그래도 보건소 선생님이 파스만 주면 좋은께. 약주고 간 낳은 괜찮아야. 냉조박 먹고 잠도 그냥 잤께. 됐제..”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현재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전에는 궁색하고 나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다르게 바라보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 참여자의 변환 경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변에 자신보다 더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조금 나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전 자신의 삶에서 좋았던 기억을 꺼내어 얘기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 자신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됨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주는 의미를 탐색하면서 ‘그래도 좋았던 때가 있었다’는 말로 표현하는 등 자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보건소 가정간호사, 복지관 직원, 방문도우미 등의 관심과 도움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당연함으로 생각해왔고, 심지어 도움이 부족하고 불만족스럽다고까지 느껴왔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해서라도 아프지 않고 잘 살아야겠다고 말하는 등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하였다.

“내가 친들께 살아도 좋은 사람들이 많은께 살지, 도와주니께 살디. 침말로 고마워..”

“내가 애들하고 살았어도 사는게 크게 달르던 암했을 거라고.. 이렇게 늙어가면 다 똑같지 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쁜쪽으로 생각안하고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라고 해요. 나 혼자나도 잘 살아야지..”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온 보건소와 복지관의 방문, 보살핌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하였다.

● 타인, 사회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됨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신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더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됨으로써 자신을 사회적 관계속에서 생각하게 되었으며 방에만 있었던 삶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고 같은 처지의 주변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다.

“보건소, 복지관 선생님들이 바쁘니까 오면 빨리들 가고 하는게 서운했었는데 지금은 그 분들도 나말고도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들여다봐야 하니까 그럴겠다 싶으고 유새는 오시면 내가 도움도 청하고 그래요.”

“다른 사례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할거 아녀, 그렇게 살다 가야지 뭐, 노인네들끼리 앤그려?”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서는 움직임말 하니까 내가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해준다고. 냉도 치워주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 선생님이 해준 얘기도 가서 한다니까.”

“예전에는 그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텃집 이씨 할머니 집에도 가고 그 할머니가 오기도 하고 경로당에도 가요.”

참여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생경험과 생활경험을 지닌 사람들은 조금 더하고 덜한 차이만 있을 뿐 관심사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지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게 됨

참여자들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을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한 가서 들여다 봐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연구자에게 표현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자신도 오래 살고 싶고 그러면 약도 먹고 잘 움직이고 사람들하고도 어울려 가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연구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다.

“참 여러 선생님들이 너무 고마운데 내가 빨리 좋아져야지.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선생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할라고 해요. 걱정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됐당게. 알았구만..., 약도 잘 먹고 자주 움직이려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바깥에도 나오고 사ışı이 어울려 살으야 혀.”

“내가 조금 더 낫으니까 조금더 아픈 할머니 들여다 봐야지, 서로가 들여다보면 되는거...”

참여자들은 스스로 힘을 북돋우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서도 자신감을 표현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참여자들이 의식 확장을 통해 변환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Newman(1986)에 따르면 전강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자각이 함께 증가하는 것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도 자신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양상을 인식함으로써 보다 높은 의식 수준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어렵게 생활해 왔지만 지나온 삶속에서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처지의 노인들과도 함께 어울리게 되고 주변의 관심과 도움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로써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스스로 힘을 북돋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3. 연구자의 건강경험

● 친밀감을 느끼게 한 시간의 의미를 체험

본 연구자도 참여자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 통찰력을 얻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지역사회 실무에서 독거노인의 방문 간호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가 새로운 통찰력을 얻고 변환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며 의식이 곧 시간속에서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 자존심을 부여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체험

연구자도 참여자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참여자에게 자존심을 부여하는 말로 참여자와 연구자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 과정이 가능해졌음을 알게 되었으며 비로소 참여자가 마음을 열고 충분한 자기노출을 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원동력이 되며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참여자들의 행동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울 수 있음을 체험

연구자도 참여자의 경험과 같이 참여자들보다 조금 나은 내가 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지역사회 실무현장에서 서로 돕기(mutual care)의 간호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느꼈다.

● 독거노인들의 삶에 진정으로 함께 할수 있음을 체험
참여자들이 공동연구자(co-researcher)로 참여하여 경험한 의식 확장의 변환 경험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변환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참여자와 연구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함께 하면서 얻은 변환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독거노인들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IV. 논 의

참여자들은 참여자-연구자 상호관계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과 존재방식을 되돌아 보는 경험을 갖게 되는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자기 인식과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이전보다 더 자유로운 시공간속으로 나아가는 변환경험을 했다. 선행연구에서도 참여자-연구자의 파트너십 속에서 참여자에게 자신의 양상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Endo et al., 2000; Lichfield, 1997; Yamashita, 1999, 1998). 이러한 양상의 인식은 Newman이론의 핵심이며 간호사가 진실한 관계에서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며 이는 대상자로 하여금 환경과 상호작용의 전체 양상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도록 이끈다(Smith, 1990).

본 연구에서 독거노인들이 변환하도록 도왔던 점은 첫째, 참여적 접근방법으로 건강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참여자가 연구자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자기노출을 하게 되고 비로소 양상을 인지하도록 이끌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독거여성 노인의 일상생활 체험을 파악한 Yang(2002)의 연구에서 자신의 삶을 한스러워함, 만성 질환 등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음, 의지할 곳이 없어 막막함, 동향끼리 쟁겨줌으로 나타난 것과 Kim(1999)의 연구에서 독거노인들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 힘의 상실 자각, 가족에 대한 애증, 삶을 수용노력으로 확인함을 나타낸 연구 결과들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사회적인 지지체가 확보되어야 함을 제시한 연구들과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아울러 Lee(2002)는 참여자가 연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우울을 극복하려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독거노인들이 자기노출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과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둘째, 참여자들이 자신의 건강 양상을 인식하는 과정

에서 자기 성찰을 하게 되면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참여자와 연구자의 상호작용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과 존재감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선택점은 참여자들 모두에서 10회 이상의 만남을 가져야 가능하였다. 그들은 자기인식과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므로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은 그대로 이지만 이전보다 더 자유로운 시공간 속으로 나아가는 변환경험을 하게 되어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존재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참여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의식수준으로 나아가는 건강경험을 하게 됨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셋째, 참여자들의 자기 성찰을 통한 자기인식은 참여자-연구자 상호작용 내에서 대화를 통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연구자를 믿고 자신의 경험을 모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서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변환됨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자존감을 부여하고 가치감을 확인하게 하여 의미와 양상의 가치를 경험하고 인식하도록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Anderson(1997)은 대상자-치료자 관계에서 사람들은 타인과의 대화속에서 계속적으로 의미를 창조해 나가고 또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대화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깊이 성찰해 봄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자신이 왜곡된 지각 속에 묶여 있음을 깨닫게 하고 현재의 삶이 주는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며, 미래에 대한 행동의도를 가지게 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독거노인에게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 하도록 하는 양상 인식 단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Endo 등(2000)의 연구에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만 초점을 두는 가족들이 양상 인식을 통해 과거의 생활과 연결시킴으로써 처한 상황은 그대로지만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됨으로써 상황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넷째, 참여자들은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인정해주고 주의 깊게 들어주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었던 돌봄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보호받고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였다. 자기 가치감을 확인하게 된 참여자들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힘을 인식하고 스스로 힘 복돋우기를 하며 앞으로 남은 삶의 방향

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

본 연구과정은 참여자뿐 아니라 연구자에게도 변환적 이었다. 우선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양상 인식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지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들과의 진실한 관계속에서 대화를 통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Yamashita(1999)의 연구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참여자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를 조명해 주게 되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듯이 연구자가 이를 잘 알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본 연구 경험을 통해 독자적인 실무개발의 기회가 되었다. 연구자는 많은 시간 함께 심층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자가 곧 치료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간호실무의 본질은 참여자들이 양상인식을 통해 자신의 행동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다. 간호실천으로서 양상 인식은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의미를 만드는 변환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Endo et al., 2000; Newman, 2002). Newman (1986, 1994)은 간호실무란 참여자 자신의 건강경험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그러한 실무는 간호사-참여자 상호작용 과정에 기반을 둔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완전하게 대상자와 함께 해야 하고 진실되며 참여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에서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고 추구하고 그들의 선택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러한 실무는 실제로 의식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고 했다. 아울러 Newman, Sime과 Corcoran-Perry (1991)는 간호사의 의식이 확장될수록 참여자와 더욱 변환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에게는 Newman(1994)의 실무연구방법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지역사회 간호에 독자적인 실무 개발의 기회가 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Newman(1986, 1994)의 의식확장을 통한 건강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의 간호학적 의의는 첫째, 간호이론에 대한 의의는 연구의 초점이 전체로서의 참여자의 건강경험을 돌보는 변환적인 과정에 두는 Newman(1986, 1994)의 의식확장으로서의 건강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간호연구에 대한 의의는 본 연구가 저

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Newman의 실무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한 첫 연구이다. Newman(1994)은 이 연구방법을 급성환자 또는 기관이나 시설중심의 간호대상자보다는 시간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만성적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에서 제시한 실무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저소득 독거노인의 건강경험을 탐색할 수 있었다.셋째, 간호실무에 대한 의의를 보면 간호실무는 참여자의 양상을 인정해주고 그에 진술하게 접근해 감으로써 “보다 높은 차원의 의식에 이르도록 간호사와 참여자가 함께 진정한 상호관계 속에서 함께 세운 목표”를 향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며 (Newman, 1986, 1994), Endo 등(2000)은 Newman의 실무연구방법의 주요활동인 양상 인식을 간호중재로 보았다. 따라서 간호 실무에서 양상인식을 위한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들의 간호 실천에 시간적 차원이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도 독거노인의 건강경험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실무방법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Newman(1994)의 실무방법론이 지역사회 간호실무에 적용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간호교육에 대한 의의를 보면 Newman 등 (1991)은 간호과학의 단일-변환적 패러다임을 제안했고 이후 Newman(1997)은 단일-변환적 지식이 간호학문에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주장하였다. Newman 등 (1991)은 전문직 학문으로서 간호는 돌봄과 건강경험에 관한 것이어야 간호의 고유 영역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간호교육에서 돌봄과 건강경험을 초점으로 한 지식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Newman의 건강이론과 실무연구방법을 지역사회간호 실습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실습 과정에서 교수는 간호학생이 참여적 접근방법으로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과 환경을 하나의 전체로서 다루게 되고 참여자의 간호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돋는 양상 인지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Newman(1986, 1994)의 의식확장으로서

의 건강이론과 그 이론에서 제시한 실무연구방법론을 근거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건강 경험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탐색한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Newman(1994)의 실무연구방법에서 제시한 해석학적-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자신의 삶속에서 통찰력을 얻고 의식확장을 통해 변환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Newman(1994)의 실무연구방법론을 적용해 봄으로써 저소득 독거노인은 물론 지역사회와 또 다른 대상자들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실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Newman(1986, 1994)의 의식확장을 통한 건강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참여자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참여자가 경험한 건강경험의 양상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가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새로운 행동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전환점은 1) 자신의 삶을 노출하면서 이야기를 통함을 느낌 2) 타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낌 3) 질병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가 새롭게 통찰한 건강경험 양상인식을 계기로 새롭게 얻은 변화경험은 1) 자신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됨 2) 타인, 사회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게 됨 3)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삶을 계획하게 됨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연구자의 건강경험은 1) 친밀감을 느끼게 한 시간의 의미를 체험 2) 자존심을 부여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깨달음 3)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울 수 있음을 체험 4) 독거노인들의 삶에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음을 체험함이었다.

따라서 실무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험을 Newman (1986, 1994)의 이론틀 내에서 접근했을 때 참여자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양상 인지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내재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무방법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동안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틀에서 벗어나 인간경험에 대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들이켜 보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건강경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간호 실무방법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Newman(1994)의 실무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상황

에 처한 독거노인들의 건강경험 양상을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제언한다. 2) Newman 실무연구를 통해 간호실무에서 인간경험에 대한 둘봄을 실천할 수 있는 실무 방법이 도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nderson, T. (1997). Researching client-therapist relationships: A collaboration study for informing therapy. *Journal of Systemic Therapy*, 16(2), 125-133.
- Endo, E. (1998). Pattern recognition as a cursing intervention with Japanese women with ovarian cancer.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0(4), 49-61.
- Endo, E., Nitta, N., Inayoshi, M., Saito, R., Takemura, K., Minegishi, H., Kubo, S., & Kondo, M. (2000). Pattern recognition as a caring partnership in families with canc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2(3), 603-610.
- Gong, Su. Ja. (2003). *Health experience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Reflected from newman's praxis methodology*.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Jonas, C. M. (1992). The meaning of being an elder in Nepal. *Nursing Science Quarterly*, 5(4), 171-175.
- Jonsdottir, H. (1998). Life patterns of people with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Isolation and being closed in. *Nursing Science Quarterly*, 11(4), 160-166.
- Kang, Hae. Young. (2000). A Study on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of elderly people with chronic illness in the community.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1(1), 172-183.
- Kang, Hae. Young. (1994). *The health experiences of th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shared with Korean rural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newman's praxis methodology*,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 Kim, Ju. Sung. (1999). An exploration of the lived experience of the poor solitary eld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1(2), 227-239.
- Lee, Han. Ju. (2002). *Narrative approach on depression of low income elderly*,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 Litchfield, M. C. (1997). *The process of nursing partnership in family health*,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Minnesota.
- Newman, M. A. (2002). The pattern that connect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4(3), 1-7.
- Newman, M. A. (1997). Experiencing the whol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0(1), 34-39.
- Newman, M. A. (1994). Theory for nursing practice. *Nursing Science Quarterly*, 7(4), 153-157.
- Newman, M. A. (1991). The research practice relationship commentary and response. *Nursing Science Quarterly*, 4(1), 100-101.
- Newman, M. A. (1986).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St. Louis :C. V. Mosby.
- Newman, M. A., Sime, A. M., & Corcoran-Perry, S. A. (1991). The focus of the discipline of nursing.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4, 1-6.
- Newman, M. A., & Moch, S. D. (1991). Life pattern of persons with coronary heart disease. *Nursing Science Quarterly*, 4(4), 161-167.
- Pharris, M. D. (2002). Coming to know ourselves as through a nursing partnership with convicted of murder. *Advances in Nursing Science*, 24(3), 21-42.
- Pender, N. J. (1990). Expressing health through lifestyle patterns. *Nursing Science Quarterly*, 3(3), 115-122.
- Picard, C., & Mariolis, T. (2002). Praxis as a

- mirroring process :Teaching psychiatric nursing grounded in newman's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Nursing Science Quarterly*, 15(2), 118-122.
- Picard, C. (2000). Pattern of expanding consciousness in mid-life women. *Nursing Science Quarterly*, 13(2), 150-157.
- Sandelowski, M. (1993). Rigor or rigor mortis: The problem of in qualitative research revisited.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6(2), 1-8.
- Smith, M. C. (1995). The core of advanced practice nurs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8(1), 2-3.
- Worobey, J., & Angel, R. (1990). Functional capacity and living arrangements of unmarried elderly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45(3), 95-101.
- Yamashita, M. (1999). Newman's theory of health applied in family caregiving in canada. *Nursing Science Quarterly*, 12(1), 72-79.
- Yamashita, M. (1998). Newman's theory of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 *Nursing Science Quarterly*, 11(3), 110-115.
- Yang, Seong Ae. (2002). *Lived experience on the daily living of activity of low income elderly*,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Abstract -

A Study on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of the Low-income Elderly Living Alone

*Shim, Moon Suk**

Purpose: This study was to explore health experiences of the low-income elderly living alone reflected in Newman's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theory. **Method:** The researcher used Newman's praxis methodology because it is good for showing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low-income elderly living alone. **Results:**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early health experience during a participant's lifetime were demonstrated that blamed themselves, being burden of themselves hopeless of their lives. However, after a turning point in health experience, The health experience of most of the participants evolved as expanding consciousness. **Conclusion:** This study has provided support for Newman's theory of health. Most of the participants recognized meanings in their patterns and authentic caring relationships with the nurse as researcher. pattern recognition as a nursing practice was a meaningful transforming process in the participant-nurse partnership. This participatory approach expands the scope of sharing health experience with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with caring community people.

Key words : Newman's praxis methodology, Elderly, Health as expanding consciousness

*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